한미 방위비분담 타결…13% 인상 유력

외교부 "내부보고 후 가서명 추진"
트럼프 정부 1년 표류 후 결실
WSJ "새 합의 2016년까지 유효"

장기간 표류를 면치 못하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결국 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압박 속에 한미동맹의 장애물로 작용하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마침내 양측의 합의점에 도달한 것이다. 미 국무·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동맹 복원의 중대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통해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외교부와 국무부 모두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미 워싱턴DC를 찾아 5일부터 이날까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미측과 협상을 벌였다. 정 대사는 당초 이틀 간 회의를 하고 이날 귀국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이날까지로 하루 늘어나면서 양측이 협상 타결을 목표로 막판 조율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 합의의 공식 발표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계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한국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를 도출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인상 고수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한 외교관을 인용, 한미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고 전하면서 새 합의가 2026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CNN방송은 지난달 논의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며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 확대와 한국의 특정 군사장비 구매 등이 합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협상은 9차 회의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가 열린 이후 한 달만이다. 대면 협상으로는 지난해 3월 미 로스앤젤레스에서 7차 회의가 열린 이후 1년 만이다. /연합뉴스

미얀마 군부, 시위진압에 '학살 악명' 특수부대 투입

"로힝야족 토벌했던 부대 목격"
샤프론 혁명때 잔혹행위 부대도

미얀마에서 지난달 1일 쿠데타가 발생한 뒤 군·경에 의해 최근까지 50여명이 숨진 가운데 미얀마 군부가 시위대 진압에 무자비한 부대를 대거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의 일요판 선데이타임스는 7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가 국경지대의 오랜 전쟁과 시위대 학살 등으로 악명 높은 군부대를 거리에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선데이타임스는 민간인 사망자 여러 명이 먼 거리에서 발사된 총탄에 머리, 목 등을 맞은 점은 숙련된 저격수들의 발포로 희생됐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미얀마의 반쿠데타 활동가들에 따르면 미얀마 전역의 도시들에 최소 5개의 경보병사단이 투입됐다.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 시위대에 발포한 군경에는 33 경보병사단 군인들이 포함됐다고 시민들은 증언했다. 33 경보병사단은 미얀마 북부 카친주와 샨주의 정글, 산에서 오랫동안 소수민족 반군들과 교전한 정예부대로 꼽힌다. 특히 33 경보병사단은 2017년 소수 무슬림인 로힝야족 거주지인 인딘 마을 학살 사건에 투입된 부대로 비난을 받아왔다. 당시 33 경보병사단은 로힝야족들을 살해한 뒤 암매장하고 마을을 불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33 경보병사단 고위 인사를 제재 대상으로 올리기도 했다.

만달레이의 활동가 크요 윈은 "우리가 거리에서 33 경보병사단을 봤을 때 상황이 훨씬 끔찍해졌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지난주 한 경찰 간부는 '라디오 프리 아시아'와 인터뷰에서 만달레이에서 시위대의 유혈 진압이 이뤄지는 동안 군인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가리기 위해 경찰 유니폼을 입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군인들)은 우리를 인간 방패로 이용했다"며 군 저격수들이 경찰 통제선 뒤쪽에서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쐈다고 설명했다.

미얀마 제2 도시 만달레이의 중심가에서 8일(현지시간) 군부 쿠데타 규탄 시위대가 플래카드를 들고 독재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달 1일 쿠데타가 발발한 이후 군경에 의해 시위 참가자 50여 명이 숨지는 유혈 참사 속에서도 군정에 저항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주 미얀마 수도 양곤에서는 77 경보병사단 군인들이 시위대에 의해 목격됐다. 77 경보병사단은 2007년 승려들이 주도한 반정부 시위(일명 샤프론 혁명) 때 비무장 시위대를 잔혹하게 진압한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77 경보병사단 군인들은 평화적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고 곤봉, 소총 개머리판 등으로 폭행했다. 이런 경보병사단들은 1948년 미얀마가 영국에서 독립한 뒤 오랫동안 소수민족 반군 등을 상대로 한 소탕 작전에 동원됐다.

미얀마군은 50년 군부 통치를 거쳐 2011년 민정 이양을 한 뒤에도 막강한 권력을 유지해왔다.

미얀마 군부는 이번 쿠데타 초기 시위대 진압을 최루가스와 고무탄에 의존했지만, 거리로 나선 시위대뿐 아니라 의사, 교사, 공무원들이 광범위한 파업에 맞서 강경 진압으로 전술을 바꿨다고 선데이타임스가 분석했다. /연합뉴스

바이든, 이르면 4월 일본 스가 초청해 회담

"대통령 취임후 외국정상 첫 대면"
미 매체 보도…백악관 확인 거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이르면 4월 백악관으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온라인매체 악시오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스가 총리의 백악관 방문은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 후 외국 정상을 처음으로 직접 대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또 스가 총리에 대한 초청은 다른 동맹국과 중국을 포함한 경쟁국에 미·일동맹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태평양 지역 안보 체계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으로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전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추진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의 여파에서 벗어나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도 차츰 정상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게 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다만 스가 총리에 대한 초청 계획과 일정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초청 시기가 약간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그러나 이런 보도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달 23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이어 이달 1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으나 모두 화상으로 진행했다.

앞서 악시오스는 지난 5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는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협의체) 첫 정상회의도 이달 중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하루 확진자 6만명인데…美 방역저항 골머리

아이다호주 아이 동원 마스크 화형식
텍사스·미시시피주 방역완화 선포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면서 감염자 확산이 둔화하고 있지만, 방역 지침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보건당국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아이다호주에서는 어린이들까지 동원한 마스크 화형식이 열렸다. 100여명의 시위대는 지난 6일 주의회 의사당 앞에 모여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겠다면서 드럼통에 불을 피워 마스크를 태웠다. 집회에 참여한 부모와 어른들의 독려 속에 아이들은 마스크를 불에 집어 던졌고, 일부 아이들은 "마스크를 없애버려"라고 외쳤다. WP는 이번 집회는 코로나 방역에 반대하며 아이다호주 전역에서 열린 여러 집회 중 하나였다고 전했다. 아이다호주는 주 전체에 마스크 착용 명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집회가 열린 주도(州都) 보이시를 비롯해 12개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텍사스주를 선두로 주 정부들도 방역 완화 조치를 속속 선포하고 있다. 텍사스, 미시시피주는 지난주 마스크 착용 규정을 철폐했고, 웨스트버지니아, 코네티컷, 애리조나, 오하이오, 미시간, 루이지애나주도 술집, 식당, 체육관 등에 적용된 집합 제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하지만, 섣부른 방역 완화 조치가 코로나 재확산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 코로나 감염 속도가 정체되기는 했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 절대 숫자는 여전히 높은데다 변이 바이러스가 새 불씨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CNN 방송은 존스홉킨스대학 자료 등을 인용해 지난주 하루 평균 신규 감염자는 6만여명, 사망자는 1700여명이라고 전했다. 또 코로나에 걸려 입원한 환자는 4만1000여명이다.

잇따르는 방역 완화 조치에 보건당국은 경고 수위를 높였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이날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는 또 다른 급증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파우치 소장은 현재 신규 감염자가 하루 6만~7만 명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고 정말 매우 높다"면서 "(방역)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지 말라. 또 다른 급증이 발생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프랑스 다소그룹 창업주 손자 다소 의원 헬기 추락 사망

프랑스의 대표적인 전투기인 '라팔'을 제조하는 프랑스 다소그룹 창업주의 손자인 올리비에 다소 공화당(LR·사진) 의원이 7일(현지시간)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다소 의원은 이날 오후 6시께 프랑스 북서부 칼바도스주 도빌 인근 투크에서 숨졌다고 라디오앵포 방송, 일간 르파리지앵 등이 보도했다. 그는 주말을 맞아 별장이 있는 도빌에 자신이 소유한 헬기를 타고 갔다가 우아즈로 돌아가기 위해 이륙하자마자 변을 당했다. 사고 헬기는 다소가 제작한 것은 아니고, 유로콥터사의 AS350 기종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로 조종사도 목숨을 잃었으며 다른 탑승자는 없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평생 조국에 봉사를 멈출 줄 모르던 수장을 잃었다"며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큰 손실"이라고 애도를 표했다.

공군학교를 졸업한 다소 의원은 1977년 파리시의원으로 처음 정계에 발을 들였고 2002년 하원의원으로 당선돼 이날까지 자리를 유지해왔다. /연합뉴스